

# 흑다리긴노린재 (*Paromius exiguus*) 약충 영기 구분법 및 야외 발생 소장

박창규, 박홍현, 엄기백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

흑다리긴노린재(*Paromius exiguus*)는 2001년 경기 김포 매립지 주변 논 1200ha에 발생하여 평균 반점미율 5%를 유발시켰던 해충으로 약충의 영기 구분 및 야외 발생 소장을 파악하고자 본 실험이 수행되었다. 약충의 영기 구분을 위하여 두폭, 흉폭을 측정하였고, 시아의 발달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야외에서 약충, 성충의 발생 소장을 조사하였다. 흑다리긴노린재 유충의 영기 구분은 앞날개와 뒷날개 시아의 발달 정도로 상대적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약충 영기에 따른 두폭, 흉폭을 측정한 결과 평균 두폭은 1령 0.23, 2령 0.27, 3령 0.37, 4령 0.47, 5령 0.61mm 였으며, 평균 흉폭은 1령 0.29, 2령 0.36, 3령 0.53, 4령 0.67, 5령 0.97mm 였다. 흑다리긴노린재의 야외 발생 소장은 화분과 잡초 기부에서 성충으로 월동한 후 띠(*Imperata cylindrica*) (1차기주)에서 1세대, 산조풀 (*Calamagrostis epigeios*) (2차기주) 1세대를 거친후 벼(*Oryza sativa*) (3차기주)로 이동하였다. 띠에서는 5월 16일에 최초로 월동 성충이 발견되었으며, 약충 발생 최성기는 6월 16일이었다. 1세대 신성충의 발생 최성기는 산조풀(*Calamagrostis epigeios*)에서 7월 7일경 이었으며, 2세대 약충 발생 최성기는 8월 11일 이었다. 2세대 성충이 출수 직후의 벼로 이동하였으며, 벼에서의 약충 발생 최성기는 9월 8일 이었다. 본 해충은 본래 야외에서 기주 특이성이 강하고, 낮은 밀도로 존재하던 해충이었으나 대규모 간척지나 나대지에서 기주인 띠나 산조풀의 대규모 군락이 형성됨으로써 대발생한 것으로 추론된다.